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 28개월 연속 증가

김·쌀·김치 등 강세...3억5천만달러 돌파, 시장 다변화·맞춤형 지원 정책 성과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이 2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지역 경제 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3억5천369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8.2%)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김, 쌀, 오리털 등 10대 주력 품목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며 전체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한 품목은 김이다. 수출액은 1억7천954만5천달러에 달한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9% 증가했다. 김은 전남 농수산물 수출의 절반 이상(50.8%)을 차지했다. 수산물 분야에서는 79.6%를 점유하고 있다.

두 번째로 높은 수출액은 쌀로 2천773만7천달러다.

오리털은 1천759만4천달러를 기록하며 20.5% 증가해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동남아 지역 수

요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어 전복은 1천478만9천달러로 다소 높은 수출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음료는 1천307만1천달러로 26.2% 증가해 가공식품 수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 밖에도 ▲미역 1천206만달러 ▲분유 1천76만6천달러 ▲유자차 719만3천달러 ▲롯데 542만달러 ▲과자류 397만8천달러 ▲커피 조제품 336만5천달러 ▲김치 319만7천달러 순으로 높았다.

특히 과자류와 음료, 김치와 같은 농산가공품이 두 자릿수 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점은 가공식품 분야 수출 성장성을 뒷받침해 준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1.7%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다. 이어 중국(10.9%), 일본(0.8%) 순으로 수출이 확대됐다. 신남방 국가(36.9%)와 유럽 주요국(10.3%)도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새로운 수출 성장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김, 쌀, 전복 등 주력 품목 외에도 가공식품 분야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며 “시장 다변화와 맞춤형 수출 지원 정책을 통해 전남 농수산업의 수익성을 지속해서 높여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오는 9월 열리는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가 24일 광주 서구 상무역사거리 일원에서 열려 광주시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 제공>

금지사 “전남 유림과 대동세상 실현”

성균관유도회 전남본부 유림지도자 총회

전남도는 24일 “성균관유도회 전남본부가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유림지도자 총회를 열어 유림들이 본연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인의예지 실천과 도덕성 회복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총회는 김영록 전남지사, 안상현 나주부시장,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 최중수 성균관장, 이권재 성균관유도회 총본부회장과 유림단체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묘향배, 감사패·표창장 수여, 내빈 축하, 초청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축사를 통해 “유교 정신이 바

탕이 돼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 선진국에 이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남 유림과 함께 대동세상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성균관유도회 전남본부는 29개 시·군지부 9천여명의 회원과 함께 매년 유림지도자 총회와 효행실천수기집 발간 등 사업을 통해 도민의 올바른 도덕성 함양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전남도는 성균관유도회 전남본부를 비롯한 도내 5개 유림단체에 유림지도자 교육사업, 선비문화 포럼, 영호남 유교문화 교류학술회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유교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양시원기자

광주보건환경연구, 8년 연속 토양분석 국제인증

국제숙련도 평가 ‘최우수’...전 항목 만족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4일 “미국환경자원협회(ERA) 주관 토양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최우수 분석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8년 연속 국제인증을 획득, 세계 최고 수준의 분석 역량을 입증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평가에서 금속

류와 유기물질 등 총 12개 항목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만족(Satisfactory)’ 판정을 받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밀 분석 능력을 공식 인정받았다.

국제숙련도 평가는 분석기관의 신뢰성과 기술력을 종합 검증하는 공신력 있는 시험이다.

ERA는 세계 환경분석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기관으로 분석의 정확도와 품질 관리 체계를 기준으로 인증을 부여한다. /변은진기자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광주자원봉사센터, 상무역 일원서 캠페인 대회 일정 등 홍보...서포터즈 모집 박차

광주시자원봉사센터는 24일 서구 상무역사거리 일원에서 ‘광주 2025 현대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9월 열리는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범시민 홍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빚고을사랑봉사단 소속 자원봉사자 40여명이 참여해 시민들과 소통에 나섰다. 자원봉사자들은 시민들에게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의미와 일정, ‘평화의 울림, 친절한 광주’라는 도시 비전을 설명하며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특히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에서 경기장 음원과 선수단 환영 환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서포터즈 모집을 안내하고 대자보 이용도 독려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의 날’과 연계한 녹색교통문화 실천 활동도 함께 펼쳤다.

광주자원봉사센터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로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까지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대회의 성공 개최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류미수 광주자원봉사센터장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국제행사 성공의 밑거름”이라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친절하고 평화로운 광주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오는 9월5-12일,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9월 22-28일 광주 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변은진기자

시립도서관, 지역자료 수집·납본 설명회

27일 오후 2시 무등도서관

광주시립도서관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무등도서관 1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자료 수집과 도서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2025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시립도서관이 공동 주최하며 광주·전남·전북 지역자료 수집기관, 공공기관, 연구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설명회는 지역자료와 향토자료의 수집 중요성을 공유하고 납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지역자료 납본제도 안내(국립중앙도서관 장서관발과) ▲지역문화 아카이브, 도서관(이호선 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특목 교수) ▲다다익선: 사서를 위한 나만의 위키 스타일 찾기(서미경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등이다.

광주시립도서관은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과 연구원 등 다양한 지역자료 생산 주체가 납본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지역문화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은 “공역대표도서관이 수집하는 지역자료는 지역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소중한 자산”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납본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문의 무등도서관 002-613-7735) /변은진기자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 무료 안치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

CMYK